

耽羅鰻과 “耽羅海” : 公共體의 “海政學”을 위하여

진경수*

국문요약

제주도. 이 단어는 제주라는 단어에 도(島) 즉 섬을 말하는 단어가 접목된 것이다. 제주라는 단어는 고려가 탐라를 정복한(서기 1105년) 시기 이후 13세기 중반에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단어의 뜻은 “물 건너 있는 땅”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육지 즉 한반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를 수 있는 단어다. “제주”란 단어의 의미론적 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허락한다면, 그것은 식민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탐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섬의 삶의 기반은 제대로 확립될 수 없다. 탐라라는 단어가 문화독립의 기반임을 명심하고자 한다. 본고는 탐라인식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그 인식을 부정할 수 없는 물건이 일본의 나라에 있는 평성궁에서 출토되었다. 1963년, 발굴된 목간들 중에서 “耽羅鰻”이란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 섬에서 수입되었던 전복을 궁에 진상하는 물품의 목록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탐라복이었다. 서기 745년의 연도가 적혀 있는 탐라복에 관한 기록이었다. 일본의 다른 고문서에도 탐라복의 단어가 등장한다. 목적은 동일한 것이었다. 일본의 황실에서 가장 중요한 진상품목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탐라복이었다. 그것이 13세기가 되면

* 서울대 명예교수, 인류학

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

본고는 그 원인을 밝혀보는 최초의 논문이다. 탐라가 고려에 정복당한 후, 그리고 몽골이 고려를 점령한 후, 이 섬은 군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전환하였다. 국가라는 조직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목장 조성으로 인하여 탐라의 원시림이 완벽하게 파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목장은 기본적으로 초지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탐라의 원시림은 제주의 초지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현재 우리들은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토양생태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시림의 토양과 초지의 토양이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삼림하의 토양과 초지하의 토양은 토양을 구성하는 토양의 기본적인 구성물인 토양입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초집은 부식된 나뭇잎에 있다. 부식된 나뭇잎으로 구성된 부식토는 粒團(떼알, aggreg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초지의 토양은 대부분 單粒(홀알)으로 구성된 토양이다. 떼알의 토양은 토양의 알갱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 공간이 물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한다. 초지하에서는 삼림하에서 가능한 부식토 형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섬의 모든 하천은 거의 건천의 모양이다. 상류가 전부 초지이기 때문에, 초지의 토양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결과로 일어난 것이 건천이다. 원시림으로 구성된 섬과 한라산의 산록은 풍부한 영양분과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목장화의 과정에서 한라산 산록과 이 섬의 토양은 물과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강탈당한 셈이다. 그 결과 하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야 할 영양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 마지막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탐라복의 멸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예상불가능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이 섬의 원시림을 회복하는 것은 탐라복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변화와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탐라복이 회복되어 탐라해를 거쳐서 교역의 장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탐라인식의 회복이 그 첫걸음이다. 탐라해의 이름도 지어놓고, 탐라복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주제어 : 耽羅復, 山-川-海, 토양생태계, 원시림회복, 海政學

I. 서 언: 海洋觀을 수정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상수로 작용하는 두 가지 축은 시간과 공간이다. 자연과학도 문학도 철학도 예술도 의학도 모두 이 두 가지 상수의 범주를 벗어나서 작동하는 것은 없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섬의 삶을 고려하는 원천적 관점을 구축하는 좌표도 시간과 공간이다. 본고는 이 섬과 이 섬으로 연결된 바다라는 공간과 탐라라는 시간, 이 두 가지의 축으로 구성된 논리 위에서 자기성찰적이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탐라론의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즉 時空座標라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본고를 작성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濟州”는 논외로 하며, “濟州論”은 다음 기회에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史學이라고 하며, 공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을 地理學(과거에는 地學이라고 하였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 인류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 중에서도 시공초월적 구조론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다. 그의 인류학이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천우신조적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시공구속적 인간과 문화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학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허공의 구름잡는 언설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본고는 탐라라는 시공구속적 삶의 관점을 정립하고, 그 관점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사회자연체계(socionatural system)의 생태인류학적 이론(John W. Bennett, 2003 參照)을 적용함으로써 이 섬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과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공정하게 분배 받는 공유자원으로서 개념화된 公共體(communs)(van Laerhoven & Ostrom, 2007)를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진행한다.

탐라를 성찰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관점은 國

家權力과 관련된 것이다. 국가의 위치가 육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육지중심주의와 육속화 사상이 발호하는 한 제대로 된 도서학(島嶼學)과 海洋觀이 자리잡을 수가 없다. 관점 자체가 육지중심주의에 기반된 불균형된 불평등에서 시작하고 있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육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했던 인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기원전 2400-2000년 경에 토지를 거래했던 역사를 보이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육지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진(사진 1)은 석판에 쓰인 설형문자로 적힌 메소포타미아의 토지거래 문서이다. 툽시카(Tupsikka)라는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이 땅의 가격으로 98구르삭갈(gur-sag-gal)의 보리와 16파운드의 양모 그리고 16퀴트의 기름이 지불되었다(British Museum의 해당유물 해설문 패널에서). 1구르삭갈은 240리터에 해당된다. 그 토지의 양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어서 토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리의 양으로 추정할 때, 상당히 넓은 규모의 토지일 수 있다. 요점은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바다의 면적을 이렇게 거래했다는 흔적은 없다는 점이다(동해안의 어촌에서 미역바위를 상속하며 거래한 풍습)이 있었던 것은 본고에서 전개하는 논리와는 맥락이 다르다(Han, 1977 참조).



사진 1 : 메소포타미아의 石板土地去來文書 : 이 사진은 필자가 런던의 British Museum에서 2013년 7월에 촬영한 것임

육지중심주의와 地政學的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이 위계적으로 완벽하게 민중을 지배하게 된 이후의 관점으로 탐라를 바라보는 것은 탐라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라라는 문제의식은 국가권력의 민중장악력이 느슨하였던 또는 수직적 위계관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을 시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는 육지보다는 해양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인식이 필요하다. 해양에 관해서도 육지의 지정학적 전략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목하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중국굴기를 내세운 최근의 “海防策略”이 明清의 “南海海疆”이라는 인식을 승계한 결과가 남중국해에 소위 “九段線”이란 국경선을 설정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明代의 “抗倭安海”와 “倭蠻混雜”이라는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자이며 지리학자인 白眉初(1876年-1940年)¹⁾는 1936년 海疆国界线的画法으로 『中華建設新圖』를 출판하였고, 그 속의 두 번째 그림으로 ‘海疆南展后之中國全圖’를 제시하면서 “南沙群島”와 “西沙群島”를 기반으로 중화민국의 “九段線”을 확정하는 주장을 하였고, 나아가서 “十一段線”(白龍尾島를 겨냥한 것)까지 언급하였다(徐志良, 2010: 94). 21세기 신중국의 중국굴기가 내세우는 구단선 주장의 시발점이 80년 전 중화사상의 지리학적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시공좌표와 국가권력, 이 두 가지의 관점이 꿈틀거리는 중국의 신제국주의적 기도를

1) 白眉初: 이름은 月恒, 만주족으로서 하북성 출신이며, 중국의 근대 지리학자로서 유명하다. 1909년 북양사범학당(北洋師範學堂)을 졸업하였고, 1912년 중국지학회(中國地學會)가 개명된 중국지리학회에서 편집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13년부터 여자사범학교에서 지리와 국문을 가르쳤고, 1917년 8월 북경사범대학 역사지리부 주임겸 지리학교수가 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中華民國建設新圖』는 32쪽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지리부도와도 같은 서물이다.

간과하는 주축적 관점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시공적으로 거대한 존재가 약동하고 있는 21세기에 탐라의 재발견을 위한 중추적 관점으로서 시공좌표와 국가권력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역사적 실체로서의 탐라와 제주가 연구의 주제로서 다루어진 것은 일찍이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동경제국대학의 토리이 류조(鳥居龍藏)는 <日本書紀>의 繼體天皇二年條 ‘二年冬十月南海中耽羅人初通百濟國’이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탐라에 관한 기록(鳥居龍藏, 1914: 31)이라고 제시하였다. 서기 508년이라는 얘기다. 일본 발음으로는 “tora”이며, 나아가서 <續日本紀>에 등장하는 “度羅樂”(聖武天皇天平三年 條)을 제시하여 탐라 출신 樂人들의 활동을 보고하였다(鳥居龍藏, 1914: 37). 이어서 京城帝國大學의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토라’는 ‘토무라’의 訛傳이라고 하였다. 度羅樂에 대해서 “<通證>²⁾에는 그것을 탐라의 악이라고 해석하였는데, 후일의 학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吐火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小倉進平, 1935)라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토카라(‘吐火羅’)는 카고시마 남쪽의 토카라열도를 지칭하는데, 이 섬들은 그야말로 작은 규모의 섬이자 소인수가 거주했던 섬들이어서 규모상으로 볼 때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소견이다.

식민지시대 초기 제주도를 바라보았던 일본인들의 관점은 『世宗實錄地理志』에 소개된 乙羅神話를 근거로 한 “日·耽同祖論”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魏志東夷傳>에 등장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韓·耽別祖論”의 제안(전경수, 2013)과 연동되면서도 대등한 지위의 논리를 확보하는 기반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즉 탐라

2) <日本書紀通證> : <日本書紀>의 주석서이다. 모두 3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谷川士清가 저술한 것으로 1748년에 시작하여 1762년에 간행하였다. <日本書紀> 전권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의 역사지리적인 위치가 한반도보다는 일본열도에 가깝다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탐라와 일본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러한 관심은 소위 “日鮮同祖論”을 지지하는 식민주의적 언설들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한 관점은 식민지조선의 문화통치에 가감없이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제작 및 반포하였던 소학교 교과서에 올라신화를 이용하여 신화상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면서, “三乙那”의 배우자로 맞이되었던 일본 出自의 “三處女”를 강조한 것은 양 지역의 혈연적 관련성 즉 탐라를 통하여 “日鮮同祖論”으로 연장되는 논리의 개발을 시도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서 제주도에 전래해왔던 창조신화에 해당되는 ‘של문대할망’신화를 배제한 경우를 보면, 식민통치의 목적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배척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승되고 있는 유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차별화하는 식민주의적 전략이 작동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또한 탐라 전승의 본풀이에 대한 巫俗迷信化의 논리에도 적용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 지역 내에서 옛날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는 것들을 사상지배라는 통치목적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신화로 부정적인 부분은 미신으로 양분하는 수법이 미신화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탐라를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탐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탐라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련하는 사람은 탐라를 대상으로 철학하기(doing philosophy)를 시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탐라철학의 길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탐라의 자연과 문화를 성찰하는 것이 곧 탐라철학의 과정이 된다. “철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저명한 철학자의 성함과 고견을 인용한다고 해

서, 그것이 철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철학하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흑세무민용으로 적용된 초보상태의 제국주의적 발상의 철학이다. 철학이란 단어를 수입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여, 수입된 단어인 철학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면, 스스로 성찰하는 관점 즉 自省(reflexivity)의 기회는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II. “耽羅海”와 耽羅鰻

화산을 기반으로 한 이 섬의 생태계에 대한 원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지질학과 화산학의 연구가 미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섬의 생태계를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곳은 섬이다’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는 도서생태학에 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섬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섬은 동서축 73km, 남북축 31km의 규모로서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삶의 원천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들을 요구한다. 섬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인 수문권과 암석권 그리고 생물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田島佳也, 安溪遊地, 2011), 이 개념이 도서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山-川-海’의 순환 모형으로 나타난다. 이 섬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동중국해의 연안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해역을 항해하는 배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한라산이다. 동중국해의 서쪽이나 남쪽에서 이 섬을 향하여 항해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야 한라산이 보일까? 전라남도의 남쪽 해안에서 한라산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인다. 오키나와의 남쪽 요나쿠니에서는 1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만의 고산연봉들이 확연

하게 보인다. 오키나와에서 미야코섬까지의 거리는 260킬로미터 정도인데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緯度の 문제가 있다. 동일선상의 위도에서 보이는 거리와 위도가 다른 곳에서 보이는 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는 五島列島(대소의 141개 섬들로 구성된 전장 150km의 길이)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 宇久島(ウクジマ, 면적은 25평방킬로미터)이다. 이 섬은 한라산으로부터 정동향으로 20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쿠지마에서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섬의 정상은 城ヶ岳(조카타케, 해발 258미터)인데, 이 섬의 여성들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는 서쪽으로 한라산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온다(鹿兒島大學 長島俊介 教授談, 2014년). 동일한 증언은 오랫동안 五島列島의 해민을 연구해왔던 동경대학의 伊藤亞人 교수로부터도 확인되었다. 우쿠지마와 한라산은 위도상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직선거리상으로 생각한다면, 해상의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는 서쪽 방향의 한라산이 보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 후지산이 보이는 가장 먼 곳에 대한 정보는 323킬로미터를 기록하고 있다.

후지산이 가장 멀리서 보이는 서쪽의 和歌山県 勝浦는 후지산과 위도상 거의 동일선상에 근접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들은 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곡면에 가려져 가시거리가 짧아진다. 3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후지산이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쿠지마에서 한라산이 보인다는 전설은 실제로 그 광경을 보았던 우쿠지마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우쿠지마에서 한라산의 자태가 찍힌 사진이 기대된다. 일찍이 鳥居龍藏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쿠지마 여성들의 전설은 을라신화에 등장하는 일본 출자의 ‘삼처녀’와 신화적 혈통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 ‘삼치녀’들이 배를 타고 건넌던 바다가 이 해역을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일부를 전해주고 있다.

오도열도에 널리 전해오는 ‘高麗島の 傳説’이 있다. 과거 遣唐船이 출발하였던 히라도(平戸)에서 서쪽으로는 우쿠(宇久), 노자키(野崎), 오지카(小値賀)의 세 섬이 鼎立하여 上五島를 구성한다. 이 중에서 오지카(小値賀)에서 정서향으로 4리 정도 떨어진 곳에 비료우도(美良島)라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의 동단에 약간의 평지가 있고, 그곳에서는 종종 기왓장들이 출토되었다. 이 섬에서 다시 서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어부들이 高麗瀨 또는 高麗曾根라고 부르는 해저 암초군이 있다. 부유하게 잘 살았던 고려도가 해저로 침몰하면서, 고려도에 있었던 절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는 어부들의 그물에 와당과 자기편들이 걸려서 올라온다고 한다. 일본민속학의 태두 야나키타 쿠니오(柳田國男)는 해저에 가라앉았다고 하는 ‘高麗島の 전설’에 이끌려 1931년 5월 5일 오지카마루(小値賀丸)라는 이름의 소형 발동선을 빌어서, 비료우도까지 순항하였다. 거기서 만난 어부들의 증언은 비료우도에서 제주도까지 항로는 17시간 거리라고 하였다(柳田國男, 1933 參照). 이쯤 되면 우리는 제주도에서부터 오도열도에 이르는 바다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다. 나는 한라산이 보이는 일본의 나가사키 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耽羅海”라고 명명한다. 이 바다는 삼을라의 부인이 되었던 ‘삼치녀’가 건넌던 바다가이기도 하다. 더불어서 탐라해는 소크트라까지 연장되어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도 포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탐라해의 해역을 무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논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바다의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넓히는 길이기도 하다.

해양세계를 바탕으로 한 섬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태평양의 섬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하와이대학의 인류학자 벤 피

니 교수는 폴리네시아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항해지식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네시아로부터 원양항해의 전문가인 마우(Pius 'Mau' Pailug)를 초빙하였고, 그의 지도로 兩艚舟(double-placed canoe, 하와이 말로는 ‘와아 카울루아’ wa'a kaulua)를 건조하여 하와이-타히티 사이의 3,620킬로미터 거리를 항해하는 프로젝트를 실천하였다 (Finney, 2003: 7). 그 배는 근대적인 시설을 전혀 장착하지 않고 뱃사람들의 전통적인 항해지식에만 의존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항해하였던 항적은 GPS에서 보여준 항적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상호 보이는 섬들 사이의 항해하는 방법과 상호 보이지 않는 섬들 사이의 항해하는 방식은 다르다. 상호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는 천체의 움직임과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항해를 위한 나침반을 대신하였다. 낮에는 해, 밤에는 별, 그리고 파도와 바람에 대한 뱃사람들의 지식이 항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별에 대한 지식은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탐라는 별과 별자리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고, 별은 신앙대상의 차원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강문규, 2017 참고).

표류와 표해, 그리고 “以船爲家”의 해양유민이란 인식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 그리고 고래로부터 사람들이 삶의 무대로 삼아왔던 동중국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논의 기반을 제공한다. 항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와의 소통방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제주도를 이해하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주변의 해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서 기상과 관련된 자료들이 동원됨으로써 수문권과 대기권을 구성하는 생태권의 내용에 연결될 수 있다. 바다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각종 표해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요나구니로 표류하였던 사람들의 진술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어내야 하고,

천오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요나구니와 제주도 사람들 사이의 상호인상기와 하멜 표류기로부터 바타비아와 네델란드로 이어지는 표해록의 글러벌리즘이라는 시야가 제주도의 이해를 새롭게 심화시킬 수 있다. 육지 중심이 아니라 해양 중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탐라의 해양세계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漢書』五行志 卷27, 中之上에 등장하는 “吳地, 以船爲家”의 용어가 『朝鮮王朝實錄』에서도 산견되는 현상은 흥미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관찰되었던 해상통행에 관한 인식이 『朝鮮王朝實錄』에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춘추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時空을 隔하여 동중국해에서 이어져온 해양문화의 면모를 증언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열강의 서세동점 결과로 진행되었던 근대화(식민지화)를 경험하면서, 이 관점은 격변하였던 증거가 있다. 아편전쟁에 승리한 영국인들이 광주와 상해에 조차하면서 발간하였던 신문인 <申報>에는 ‘潮惠民情土俗論’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1872년 6월 20일자). 그 내용의 ‘海民’에 대한 정의는 ‘광동성 동부(粵東)에서 “以海島爲巢穴以舟楫爲室家”하는 집단으로서, 이들이 육지로 상륙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도적의 무리다. 해민들이 嶺南의 근본적 걱정거리다’로 적었다. 전형적인 육지중심의 사고를 기초로 해민인 단민(蠶民)들을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되며, 그러한 관점이 영국인들의 식민지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해양과 해민을 바라보는 식민주의적 시선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사의 일부로서 편제된 관점과 해석사라는 독자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됨으로써 탐라의 해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이 아니라 海域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琉球의 역사, 대마도의 역사, 오도열도의 역사, 그리고 주산군도의 역사 등

을 포함한 비교해역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해역사라는 장르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탐라해와 탐라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설과 사서의 기록으로 상당량이 전해지고 있다. 기원전 473년 越王句踐에게 멸망한 吳太伯의 일본이주설(上野武, 1992: 137)과 기원전 210년대 徐福東來說(上野武, 1992: 141)이 탐라해를 포함한 동중국해상에 유포된 전설들이다. 太伯과 徐福의 두 집단들이 해상이동을 하는 동안, 그들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한라산과 탐라를 제외한 해상교통로는 생각할 수 없다. 서기 677년부터 1859년까지 약 1,200년간 “五島列島에 漂着” 한 기록은 251건으로 수집된 연구결과가 있다(北見俊夫, 1992: 313-318). 표착한 배들의 출발지를 집계한 순서를 보면, 중국, 조선, 유구, 일본 순이다. ‘東亞地中海’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凌純聲(1901-1981, 중국의 제1세대 인류학자)과 “環シ海”를 썼던 코쿠부 나오이치(國分直一)의 선행연구를 계승하여(北見俊夫, 1992: 273), 키타미 토시오(北見俊夫)는 “東亞地中海文化圈”의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서, 1443년-1488년간에 발생하였던 표류사건들을 정리한 濟州島關係漂流年表(高橋公明 1992.4.20: 189)에는 13건이 기록되었는데, 표류선의 출발지로 보면, 五島列島 4건, 토카라列島 1건, 流求列島 3건, 中國沿岸各地 4건(高橋公明, 1992: 188)이다. 즉 표류도 해상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나는 키타미(北見)와 타카하시(高橋)의 견해에 동의하며, 탐라해가 동아시아중해의 일부라고 첨언하고 싶다.

일본에서 해민에 대한 연구는 15·6세기의 五島列島, 濟州島, 舟山列島를 포괄하는 ‘倭寇支配地域’이라는 가설을 상정하기도 한다(網野善彦, 2009: 100-101). 이 가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자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더욱더 많은 자료의 뒷받침

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가설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입장에는 아직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최소한도 이 지역의 해로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여태까지 제시된 탐라해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견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北部九州의 지역은 대륙문화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곳이고, 크게 나누어서 2갈래의 대륙행 통로가 있다. 하나는 朝鮮半島로부터 對馬, 壹岐를 경유하여 北部九州에 이르는 길(北路)로서, <魏志倭人傳>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8세기에 이르러서 遣唐使가 통과하였던 항로이다. 즉 五島列島와 같은 섬들을 경유하여 남중국해를 횡단하여, 揚子江河口 부근에 도달하는 길(南路)이다”(下川達彌, 1992: 102). 시모카와(下川)가 제시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시모카와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길을 간과하고 있다. 그의 설명은 탐라해상에 존재하는 제주도라는 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따라서 북구주의 오도열도를 기점으로 하여 탐라를 경유하는 항로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항해하는 도중에 맞닥드릴 수밖에 없는 제주도를 경유하는 항로를 고려한 것이 타카하시 쿠니아키(高橋公明)의 입장이다. 이 항로는 8세기에 개척되었던 견당사를 위하여 구축되었던 南의 항로 이전부터 작동하였던 海民들의 일상적인 항로였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권력이 작동하기 이전에 해민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존재하였던 해상의 토착적인 항로였음을 제안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 해안과 일본열도의 직결설(網野善彦, 1987: 393)과 전라도-제주도-북구주 항로(高橋公明, 1987)가 제안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탐라해를 무대로 해상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야나키타 쿠니오가 일본산악회 제2회대회석상의 연설문에서 “山民”(柳田國男, 1909)이란 개념은 사용했지만, 바다와 관련된 두 책을 저술하였던 그가 “海民”이란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

다. 아미노(網野)가 1971년에 정의한 海民의 용례는 “湖沼河海를 막론하고 수면을 주 생활 터로 하며, 漁業, 塩業, 水運業, 商業으로부터 掠奪에 이르기까지 생업을 한다. 즉 완전히 분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盛本昌広, 2009: 138)이고, “未分化된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존재로서 개념 규정되고 있다”(盛本昌広, 2009: 147-148). 陸의 지배논리가 아니라 海 그 자체로서의 특질로 보려는 시도를 간과할 수 있다. 海는 길이다. 육지처럼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는 그 자체가 길이며, 열린 곳이다. 생산양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사관의 극복이 필요하다. 농업사관에 대한 어업사관(나아가서는 해양사관)이 해민의 개념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일본의 기록에 등장한 탐라인들을 외교사절 아니면 표류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森公章, 1985)로는 “來日”(일본으로 들어옴)의 의미를 해독함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왕래하였던 복수의 목적을 갖고 다녔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일기가 나빠지면 표류민이 될 수도 있다. 그 향로는 이 해역을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화된 길이었다.

탐라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들로는 738년의 “耽羅方脯”(周防国正税帳), 목간의 사례로서 745년의 “耽羅鰻”(平成宮出土木簡), 927년의 “耽羅鰻”(〈延喜式〉主計上式) 등이 있다. 탐라방포는 분명히 방포의 산지가 “耽羅”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耽羅鰻”은 그 산지를 특정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있다. 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것이 일본에서는 “御調”(미즈키, 황실 공납을 위한 특산품)를 구성하는 특별한 물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耽羅鰻”은 乾鰻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가공품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근거는 “耽羅鰻”의 분량을 가늠하는 단위인 “斤”이라는 글자에 대한 논의로부터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延喜式>의 “葛貫鰻十二斤。耽羅鰻十八斤”라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무게를 측정하여 표기하는 단위로서의 “斤”이 의미하는 바는 특별한 가공 이전의 乾鰻 상태에 대한 측정 단위라고 생각된다. 肥後国(熊本県)이 「耽羅鰻」 39斤, 豊後国(大分県)도 「耽羅鰻」 18斤을 공진하였다고 한 기록의 “耽羅鰻”도 모두 건복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장거리 항해를 대비한 방식이 건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물인 복으로부터 껍질을 떼어내고 전복의 육질 부분만을 염장하여 말린 것(完乾 또는 半乾)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을 거래할 경우에는 “斤”이란 단위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위치상으로 볼 때, 비후국과 풍후국은 주방국과 가깝기도 할 뿐만 아니라 탐라 쪽으로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후국과 풍후국으로부터 진상된 전복은 그 원산지가 탐라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安房国(아와노쿠니, 치바현)에서 나라의 平城宮으로 진상된 “耽羅鰻”의 출처에 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다. 양성종이 그에 대하여 產地說(今村 靑, 網野善彦)과 種類說(森 公章)로 구분하고, 자신은 산지설을 따른다(梁聖宗, 1994: 4)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는 다시 아와노쿠니일 가능성(渡辺晃宏, 2018)도 제기되어 있다. 나는 양성종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耽羅鰻”의 원산지가 탐라라고 생각한다. 그 첫번째 이유는 <延喜式> 이후의 어떤 문건에도 “耽羅鰻”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耽羅鰻”이 일본 내로 조달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아와노쿠니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남아 있다.

시부사와 케이쥬(澁澤敬三)를 비롯하여 <延喜式>의 내용을 분석한 학자들은 아와노쿠니의 위치가 平城宮보다도 훨씬 동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또 아와노쿠니에서도 전복이 생산되기 때문에, 아와노쿠니의 사람들이 일부러 탐라의 전복을 수입하여 平城宮으로 진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澁澤敬三, 1954). 그래서 시부

사와(澁澤)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에는 “耽羅鰻”이라는 명칭의 양질의 전복이 생산되었고, 그것이 平城宮으로 진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한편에서는 이 의견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견해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방향과 거리 문제이다. 이 가정은 해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해류를 통한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동수단을 육지의 교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부사와 등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동수단이 배인 경우에는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던 사람들의 교통과 교통로 그리고 그 수단에 대해서 해역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명칭 그 자체의 문제이다. 공진품으로 정형화된 “耽羅鰻”의 이름은 하나의 특정한 종류에 대한 명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平城宮의 서쪽 지역에서 공진되는 鰻과 동쪽 지역에서 공진되는 鰻이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표현하는 명칭이 공진품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된다. 그 명칭이 동일한 것은 원산지가 동일한 종류의 공진품이라는 의미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용어 선택과 사용의 용례에 있어서 지극히 보수적인 일본문화를 생각하면, 耽羅鰻이란 용어가 여러 갈래로 적용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延喜式> 이후에 “耽羅鰻”의 명칭이 일본측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가? 鎌倉時代 연구를 전제로 할 때의 기본사료인 <吾妻鏡>(아즈마카가미)³⁾에는 建久3年(1191年)에 源頼朝(みなもとのよりとも)가 元에 年貢으로서 “長鮑”를 보냈다는 기록에 대해서, 이 長鮑가 熨斗鮑(노시아와비)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吾妻鏡>의 “長鮑”는 “鰻”이 아니고 “鮑”라고 써서 전복을 가리키고 있다. 평성궁

3) 治承4年(1180年)부터 文永3年(1266年)까지 막부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서물이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吾妻鏡>이라고 불렀고, 에도시대 초기의 고타자본은 <東鑑>이라고 부른다. 양자는 동일한 내용이다

에서 출토된 목간들에 의하면, 전복을 지칭하는 용어는 최소한도 세 가지가 등장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鮑, 그리고 蝸(平城宮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34: 10)과 鮑(地下노正倉院展 國寶 平城宮跡出土木簡 第III期 展示木簡 65번)의 사례도 출토되었다(奈良文化財研究所, 2017: 10-11). 두 번째 것은 “生蝸”이라는 단어가 적힌 목간이었고, 세 번째 것은 “御取鮑[三十烈]”의 사례다. 이 삼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평성궁에서 출토되었던 목간들은 8세기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목간들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기에 사용되었던 글자들이 동일한 물건을 지칭할 리는 없다.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伊勢神宮에는 고래의 제조법으로 만든 노시아와비가 6월과 12월의 月次祭(つきなみさい), 10월의 神嘗祭(かんなめさい)에 봉납된다. 이 노시아와비는 三重県鳥羽市国崎町の 鎧崎(요로이자키)에 있는 神宮御料鮑調製所(이 명칭에 고래의 “鮑”자가 남아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 글자가 “耽羅鮑”의 유산임을 증언하는 것일 수 있음)에서 만들어진다. 노시아와비를 만드는 것은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1회에 사용되는 전복은 약 200킬로그램 정도이다. 요로이자키에서는 매년 7월 1일에 海土潛女神社(아마쿠구리메진자)의 마즈리(祭)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위해서 이세신궁의 무악(舞樂)팀이 아주 규모가 작은 촌사인 요로이자키의 마즈리에 참가한다. 일종의 神緣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 참조). 이것은 海女(아마)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설의 아마(海女) ‘お弁’(오벤)을 모시는 海土潛女神社(あまくぐめじんじゃ)에서 이루어진다. 第11代垂仁天皇의 第4皇女인 倭姫命(야まとひめのみこと)가 国崎를 방문하였을 때, 「お弁」이라고 하는 海女가 전복을 헌상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吾妻鏡>의 기록은 더 이상 “耽羅鮑”의 생산과 조달이 어렵게 된

상황의 배경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용어도 “鯨”에서 “鮑”로 변경되었으며, 양자는 차원이 다른 威勢品들임을 일본의 기록문서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耽羅鯨의 지위에 熨斗鮑가 대체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좀 더 줄여서 말한다면, 鮑가 鯨을 대체한 셈이다. 기록과 문서라는 측면에서 속고해본다면, 이것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차원의 변화였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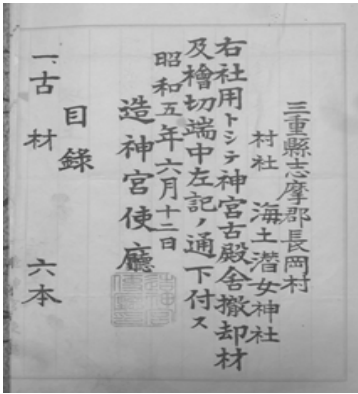


사진 2 : 造神宮使廳과 海土潛女神社の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1930년 6월 12일): 이세신궁에서 20년에 한 번씩 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正宮을 좌우로 옮기는 것을 말함) 식년천궁의 행사를 할 때, 舊正宮에서 나오는 목재를 본 촌사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다음 천궁은 2033년에 예정되어 있다.

고려의 황제국체제(노명호, 2017) 발흥은 서기 1105년 탐라를 복속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이후 고려는 이 섬에 목마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음이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이후부터 몽골인들이 목장으로 쓰면서 개발되었다고 보고 있다(김동전·강만익, 2015; 강만익, 2016). 따라서 탐라에서는 대규모의 목장건설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노역에 동원되었을 것이며, 1277년 이후에는 元의 대규모 목장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섬의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양질의 전복(耽羅鯨)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섬에 가해졌던 정치적 구조의 격변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격변과 노동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이상 “耽羅鯨”을 수입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원시림의 탐라가 목장화에 의한 초지로의 전환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延喜式>에 등장하는 아와노쿠니에서 진상품으로 올리는 “耽羅鰻”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공진품의 명단에 지정되어 있었고, 탐라와 아와노쿠니 사이에는 그 이전부터 탐라해를 경유하는 해상교통로가 열려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탐라사람들이 흑조난류를 타면 志摩半島를 거쳐서 아와노쿠니에 당도하는 것도 하나의 연안항로 일 수 있다. 그 교통로를 타고 20세기 초의 지마 아마들이 제주도까지 출가하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의 “潛女”들을 표기하는 명칭이 志摩海女들이 모시는 신사의 명칭(海土潛女神社)에 각인되어 있다. 그 단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이 소홀하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석비에 석각으로 남아 있는 “潛女”라는 글자의 역사적, 지리적 무게를 감지할 수 있다. 탐라에서부터 지마반도까지 이어졌던 천 년이 넘도록 작동하였던 뱃길의 공동체적 흔적이 석비에 각인되었음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싶다. 이것이 동아지중해와 탐라해의 유산이다. 그리고 方脯와 鰻의 명산지로서 고대 일본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표현이 “耽羅方脯”와 “耽羅鰻”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탐라의 브랜드였던 탐라복이 일본으로 전해졌던 그 바닷길을 탐라해라고 부름에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사진 3. “放牧狀況”: 나무가 전혀 없는 제주도 목장(山口県立山口図書館所在 桜園寺内文庫 소장) (田中源三郎 1911.1.1.)

Ⅲ. 山-川-海와 미시생태학

한라산을 정점으로 육지의 경사면이 방사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물 흐름에 의해 하천이 형성된다. 이때 유역의 넓은 면적이 울창한 원시림으로 덮여 있으면 하천은 수량이 풍부하지만, 초지로 바뀌면 사정이 달라진다. 숲이 많은 물을 머금고 하천으로 공급하는 현상은 특히 토양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인공초지에 비해서 자연숲에서는 낙엽과 죽은 실뿌리가 넉넉하고, 그 유기물의 부식과정에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런 까닭에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숲과 초지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리화적이고 생물학적인 토양 성분이 파괴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즉 토양입단(aggregate, 폐알)의 안정성이 유기물과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미생물의 집합 구성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파괴를 경험한 토양의 입단 회복이 토양미생물과 토양균류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Shukla, et al. 2003: 1272). 토양생태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Weil & Brady, 2016)은 미시생태인류학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숲이 목초지보다 토양유기물(부식질 포함)을 넉넉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침투와 함께 수분보유능력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토양의 입단형성으로 불규칙한 모양의 틈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단립의 흙 알갱이들이 서로 붙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화학적·물리적 힘은 그냥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생물적 힘은 생물이 에너지를 투자해야 생긴다. 토양의 입단을 묶는 생물적 힘은 주로 미생물이나 작은 실뿌리가 분비하는 유기물에서 나온다. 단립토양보다는 입단토양으로 구성된 토양 안에 더 크고 넓은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

긴다. 다른 것들, 즉 그것은 미생물의 삶에 필수적인 물이나 영양분이 될 수 있다. 토양의 입단 만들기는 빈틈 안으로 물과 자양분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방식이 된다. 미생물에게 그 빈틈은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인 셈이다”(이도원 교수의 메모로부터). “土壤粒團의 안정성은 이산화탄소의 저장, 유기물의 안정성 확보, 수량 확보와 토양침식방지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또한 토양 안정성의 증진은 농업생태계의 지속성과 토양침식 방지 그리고 파괴된 땅과 기후변화의 회복을 위한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Duchicela, et al. 2013). 토양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은 토착식식 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탐라의 원시림 회복이 이 섬에 희망적 환경을 안겨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된다.

그릇된 인식의 ‘40년 생태관광’이 남긴 원시림 파괴로부터 원시림 회복의 실험을 가동한 코스타리카에서 배워야 할 과제가 목하 진행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인 케짚(quetzal, 佛說의 阿彌陀經에 나오는 六鳥 중의 하나인 迦陵頻伽에 가장 근접한 모양의 새가 아닐까 한다)이 회복되는 원시림에 등지를 틀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 이 섬의 원시림이 회복되는 프로젝트는 탐라복이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록색 등판 털과 붉은 색 가슴 털 그리고 푸른색의 긴 꼬리를 자랑하는 케짚이 코스타리카의 원시림에 돌아오듯이 長徑 20센티미터가 넘는 탐라복이 이 섬의 주변 해역에 부활하는 세상이 오도록 해야 한다. 이 섬의 원시림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는 백 년 뒤의 이 섬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엄습하는 기후변화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케짚과 탐라복이 돌아오는 현장이 오스트롬이 제안하는 공공체 거버넌스(Ostrom, 2015)의 사례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실천되고 있는 케짚 회귀와 원시림 회복의 소식은 이 섬에서 탐라복의 회귀와

원시림 회복에 희망적 낭보가 된다.

山-川-海는 물이 순환하는 하나의 環을 구성한다. 건천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바다에 공급되는 영양분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하천이 풍부한 수량을 바다로 흘려내려 보내면서, 산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바다로 공급될 수 있다. 현재 초지를 중심으로 하여 목마장의 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토지이용 형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관점이 요구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의 초지 중심 경관은 일시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자연’이다. 元의 식민지가 된 후, 탐라에 부여된 목마장의 역할이 현재의 초지중심 토지이용의 기반이 되었음은 역사적 사실로서 규명될 수 있다(사진 3 참조). 이 섬이 속해 있는 식물생태계는 고산지역을 제외하면 난대림을 중심으로 하는 조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이다. 말하자면, 樹林帶의 원시림이 초지로 전환되었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이 섬의 많은 하천들은 건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건천들은 원시림을 배후지로 했던 경우에는 건천일 수가 없었다. 산지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천의 바닥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천을 비롯한 이 섬의 하천들이 건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언설이다. 화산도로 구성된 지구상의 많은 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현재 지극히 미미하게 보고되고 있는 민물고기의 종류는 원시림 상태의 하천에서 생태계를 구성하였던 어류를 대변할 수가 없다(김완병, 2016; 양계청, 2013; 이완옥·양계청·김대환·김대회, 2014; 이완옥·홍양기·양계청, 2015 참조). 초지와 건천이 배후가 된 바다와 원시림과 하천이 배후가 된 바다의 영양공급 상황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사료를 취급하는 사학자들은 문헌으로부터 그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아내야 하고, 자연지리를 전공하는 지리학자는 하

천의 지질구조로부터 그 증거를 추적해야 한다. 생태권의 한 축인 암석권을 형성하는 화산과 그 결과물인 지질에 관한 관심은 탐라의 생산기반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명기반을 생태학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화산 활동과 이어지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명이 탐라 이해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질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제주도 내의 구역별 차이에 대한 이해는 토양의 이해에 반영될 것이고, 그 결과는 탐라인들의 작물재배를 비롯한 생산 활동과도 연계된다. 화산활동과 그 결과물로서의 동굴에 대한 이해는 탐라 옛 경관을 이해함에도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복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Field, Tsianina, 2008)이기 때문에, 탐라의 생산기반과 해상활동이라는 장르를 열어갈 수 있는 일종의 깃대종의 지위에 있는 것이 탐라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탐라복이 이 섬을 대표하는 동아시아중해의 브랜드였고, 원시림이란 버팀목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탐라복의 브랜드화는 가능하였다. 토양미생물에 관한 토양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이 궁극적으로 탐라복의 생성과정의 배경이 되고 있음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밝히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원시림과 하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度羅樂”과 “耽羅鰻”에 관련된 논의들은 사라진 단서들의 잠을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출토된 유물에 대한 고찰로도 탐라사의 복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빼앗긴 탐라사에도 유산은 남는다”는 점을 증명해줄 수 있는 단서들이 일본측의 사료에서 등장하는 “度羅樂”과 “耽羅鰻”이다. 그 유산이 자연과 문화 속에 간직되어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두 단어가 고려와 조선측의 사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일본의 사료에서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유사한 종류의 단서들은 이 섬의 곳곳에 명백하게 유존하고 있다. 본풀이의 내용 속에서도, 언어 속에서도, 지명 속에서도, 전설 속에서도 남아 있고, 자연 속에도 각인되어 있다. 기록물로서의 “史”는 빼앗길 수 있지만, 저변의 문화는 누에고치 속의 누에마냥 숨어 있을 수 있고, 자연의 본체는 본연으로 각인되어 있다. 편린으로 남은 탐라문화와 자연의 조각들을 짜 맞추고, 전체 모자이크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드러나서 읽기 쉬운 작업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대상이 탐라사라고 말할 수 있다.

탐라사는 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화와 자연의 문제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임을 언명하고 있다. 연역과 귀납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과제임을 감지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담보하는 것이 탐라사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한다.

그것은 조각난 기억들을 짜 맞추는 작업일 것이고,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해야 한다. 사회적 기억들에 대한 추적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동원될 수 있다. 신화나 전설 그리고 설화 등의 형태로 전해오는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말(speech)이 분석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 섬을 구성하는 땅에 각인되어 있는 토속지명은 이 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자연체계에 대한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자료의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섬에서 본풀이라는 장르로 전승되고 있는 심방들의 서사이다. 그것은 노래와 시의 형태가 어우러져서 구성된 전승형태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이듬하여 ‘민요’라고 하지만, 전승되고 있는 노래를 말한다. 이 섬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자장가, 노동요, 부요 등으로 분류되어 고찰되어 온 노래에 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노래들 사이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독자들은 탐라노래를 통해서 탐라사람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탐라의 자연에 적응된 노래들을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탐라의 노래를 탐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노래를 통해서 탐라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탐라의 신화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설문대할망’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올라’신화로 이해되어 왔다. 창세신화와 건국신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신화라는 장르에 대입될 수 있는 이야기들만으로 한정된 것이다. 아니다. 탐라에는 한덩어리의 커다란 이야기가 전승되었다. 현재 신화라는 장르와 전설이라는 장르 또는 무가라는 장르 등으로 나뉘어 버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나뉘기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근대학문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이 하나의 탐라이야기를 여러 장르로 나누어 버린 결과를 마주 대하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의 장르인 ‘탐라이야기’에서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장르에 의해서 조각이 나뉘는 ‘탐라이야기’의 파편들을 현재 신화다 전설이다 무가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각난 파편들을 모아서 ‘탐라이야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판을 열어야 한다. 근대학문이라는 장르에 의해서 해체된 탐라이야기는 복원되어야 한다. 해체된 결과의 틀을 다시 해체함으로써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 복원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복원작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몫이다. 소위 인문학이란 영역으로 한정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전설에 속하는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이 신화들 내용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신화는 이야기 담지자들의 사상을 피력하기에 안성맞춤의 자료이다. 탐라신화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탐라사상과 탐라철학에 대한 논

의의 전개가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본풀이와 무속’의 분야와 함께 “탐라바이블”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섬 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본풀이는 신화나 설화의 차원과 연계되어서 탐라사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굿으로 표현된 무속의 중심이 되어 있고, 탐라정신사의 중추로서 본풀이는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풀이를 통한 탐라사상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굿이고 무속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場(gestalt)은 이 섬 사람들의 신앙체계의 바탕을 구성하는 제일의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구전이 빈약한 역사를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보여준다. 신화와 전설의 장과 잘 결합된 본풀이와 무속의 해석은 제주도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탐라사상과 탐라철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탐라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해온 것이 탐라어이다. 탐라어는 아직도 근근이 살아있지만, 유네스코에 의해서 절멸위기의 언어로 지정되어 있다. 탐라어가 체계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地名이라고 생각한다. 지명에 각인되어 있는 탐라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탐라어의 유래와 구조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탐라어가 형성되어온 시간적 층화현상을 발견해냄으로써 탐라사의 연구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魏志東夷傳>의 馬韓條 끝에 소개된 州胡에 관한 소개는 주호의 사람들이 韓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일찍이 동아시아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을 갖고 州胡를 인용하여 제주도를 소개하는 문헌을 간과할 수 없다. “州胡(Chau-hu) 사람들은 배를 타고 코리아와 무역을 하여 소와 돼지를 가지고 가며, 그들은 (코리아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MacGowan, 1891: 296). 맥고완은 위지동 이전의 문장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마지막의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은

맥고완이 삽입한 내용이다⁴⁾. 맥고완이 제시했던 주호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여권정치’(gynecocracy)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탐라어 연구자는 제1차적 목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세밀한 地名(海名을 포함)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단어들이 제시할 수 있는 생태학적 기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자연의 문화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탐라어의 위에 얹힌 다른 종류의 언어들을 층서별로 정리함으로써 역사적 변동 상황을 언어학으로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그 집단의 사상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탐라어에 담긴 탐라인들의 사상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식주와 민구라는 유산들은 이 섬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연전유의 증거들이다. 이 섬 사람들이 입어왔던 옷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특징적인 탐라문화의 현상이다. 옷을 논하지 않고, 탐라사람들의 삶을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면서, 옷과 관련된 일상생활과 의례생활이 조명됨으로써 탐라문화의 정수를 읽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탐라사람들의 사상이 깃든 탐라의 옷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섬을 배경으로 한 음식은 이곳 자연의 표현이자 곧, 탐라사람들의 자연전유의 방식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이 깃들여 있는 것이 음식이고, 자연물이 음식으로 전유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 음식은 일

4) Daniel Jerome MacGowan(瑪高濶: 1815-1893)은 미국 Massachusetts 태생으로서 1843년에 침례회 의료선교사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의사 역할을 하면서 寧波에서 서적들을 발간하였으며(《博物通書》(愛華堂 1851, 전보와 전기에 관한 개론서)와 <航海金針>(愛華堂 1853, 항해와 기상에 관한 서적)), 이러한 서적들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다. 그는 일본을 3회 방문하였고, 상해에서 사망하였다.

상과 의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담고 있다. 섬의 토양과 해양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구하는 방식에서부터 음식의 모습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자연에 대한 이해 없이 음식을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자연 전유의 과정은 탐라철학을 거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이 된다. 탐라의 음식은 탐라의 빛깔을 포함하고, 손길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음식논의는 탐라 철학으로 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탐라사람들의 집에 관한 논의 없이 탐라문화의 특징을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안거리’와 ‘밖거리’의 구조가 발생하였는가? 이것을 “耽羅家屋”이라고 명명할 경우, 이러한 형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의 연결과정으로부터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연동시킨 서술이 필요하다. 집에 포함되는 재료와 기술 그리고 도구 등을 거론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조직적인 측면과 생태학적인 측면 즉 사회자연체계에 입각한 분석이 동원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축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거시적 시각으로 탐라의 집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 속에 삶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간파하는 저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의식주의 영역과 함께 民具라는 것은 생업과 일상생활의 진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고고학적인 자료의 배경이 되는 원시생산경제로부터 시작하여 목장화가 진행된 이후, 그리고 근대적이 농어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물질적인 증거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민구로 대표되는 각종 물건들이다. 민구를 보는 눈은 고고학과 사회학 그리고 생물학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생산경제와 관련된 민구라는 문제의식은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생산조직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

회자연체계라는 안목은 통시적인 문화변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서 탐라로부터 제주로 이어지는 제주도의 삶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문제의식이다. 탐라자연의 문화지와 탐라문화의 자연지가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IV. 결어: “海政學”(“Oceopolitics”)의 산실

1916年 스웨덴의 루돌프 크젤렌(Rudolf Kjellen)이 제창하였던 침략적인 “地政學(Geopolitics)”이란 용어가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폴리틱스’라는 것도 정치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호모 사피엔스의 이름에 걸맞게 슬기롭게 ‘관계’를 위한 것이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지정학의 틀을 해양에 적용하여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과 도서를 생각하는 해정학을 제시한다. 해양인식을 담아낸 海圖가 海洋을 만들어낸다. 탐라에서 출발한 해정학으로 육속화된 육지중심주의의 구속을 벗어난 탐라인식이 제대로 된 성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년 전 白眉初가 “九段線”을 설정하였던 중화사상의 패권주의와 애국주의가 발호하였던 것과는 다르다. 탐라해를 조망하는 안목은 역사적 사실의 탐라복을 배경으로 바다를 공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생주의(commensalism)에 기반한 것이다. 공생주의에 기반한 동중국해를 안목에 자리잡도록 하는 구도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정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은 섬들을 지칭하는 도서를 기반으로 한 “島嶼學” 정도로는 탐라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다도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틀로서 충분하다.

시간대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 용서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근대화가 한반도를 삼켰다면, 육속화가 탐라를 삼킨 것’이라

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身體陸續化의 중앙정부적 전략이 탐라를 유배지의 역할로 제한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현재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과거의 목장화라는 자원경제 육속화의 전략이 목하 진행중인 관광중심 구도 속에서도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목장화에서 관광화로’의 변화는 근본적인 식민지적 착취구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역사적 충격으로 인하여 ‘山-川-海’의 탐라생태권은 ‘山-海’로만 억지로 작동하는 구도가 조성되었다. ‘川’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의 작동을 위하여 외부자본이 개입한 상태를 목하 목도 중이다. 탐라 본연의 생태권의 허리가 잘려져 버린 상태인 모순적인 구도를 아무도 폐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모순된 생태권의 기반 위에서 국가권력과 외부자본의 개입이란 전략하에 진행되는 자원경제 육속화의 관광산업중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자유도시’와 립서비스 차원의 “특별자치”라는 마각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만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탐라해는 아예 안목에도 없는 상황이다. 한라산과 탐라해는 하나의 사이클로 순환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자연체계로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탐라해와 한라산은 육지와 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쓰레기의 종착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탐라해라고 외면하지 않는다. 제주도지사는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태평양의 바누아투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비해야 한다. 바다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확립이 탐라사상으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천년 전의 耽羅嶋人들은 최소한도 바다를 삶의 실천장으로 삼고 살았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 천년 전의 삶을 무시하면, 현재의 삶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탐라해에 대한 인식과 탐라복의 브랜드가 사라졌던 것처럼, 또 다른 정체성의 문제인 탐라어가 사라

질 위기에 처했음을 목도한다. 정체성 위기의 수렁에서 해방될 방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은 타자화되어 버린다. 역사에서 “濟州”가 탐라를 찬탈하였던 것처럼 타자화의 역사는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 탐라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탐라인이 사라질 자리가 마련된다. 그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동아시아에서 탐라의 존재는 독특하다. 흔히 제주도와 대비되는 오키나와가 14세기 초 즈음에 유구국으로 시작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탐라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7세기 이상 일찍 하나의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오키나와가 ‘문화독립’의 가치를 내세우고 유구문화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온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로 무역을 다녔던 탐라사람들,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활동하였던 탐라사람들의 모습을 고고학적인 자료와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육속화된 ‘제주’도가 아니라 해양세계의 독립체였던 탐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탐구함으로써, 탐라사상사와 탐라철학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식민주의적 海洋觀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탐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확보할 수 없다. 탐라에 관해서 기록해둔 중국측과 일본측의 문서들이 존재한다. 왜 탐라에 관한 한국측의 고대 기록이 빈약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三國史記』의 편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탐라를 제외하였는 지에 대해서 추궁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측의 사료들로부터 재구성해 보아야 하는 탐라사는 한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동아시아사라는 범주로 눈을 돌리게 한다. 한국사의 지방사로서 논의되는 경향의 연구들이 재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몽골 측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추적 필요하다.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탐라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필수적이다. 문서기록으로부터 찾은 탐라관계 기록들이 구전하고 있는 자료들과 어떤 맥락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된다.

제주도의 패총에 대한 개괄을 전제로 하고, 古動物學의 관점에서 패총출토의 동물유산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기대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섬에 존재하였던 동물의 뼈가 말해주는 내용이 궁금하다. 해안과 바다에서 채포되었던 어류와 패류의 정리가 탐라인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생태학적 조건의 재구성에 있어서 제주도의 패총출토 동물유산은 필수적인 자료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패총유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탐라사의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해줄 것이다.

생태학과 문화(사회조직, 기술, 관념)가 잘 결합된 탐라중심의 슬기로운 행정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그 행정학의 핵심주제로 자리하고 있는 潛女 연구를 기대한다. 탐라인의 핵심에 잠녀를 위치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140년 전에 동아시아 비교문화론의 연구주제로 여권정치를 언급하면서 州胡의 존재에 착안하였던 맥고완(McGowan)의 논의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를 재발견해야 한다. 왜, 잠녀들은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가?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수순이 있는 법이다.

1960년대 미해군의 연구자금으로 생체학적 연구를 필두로 자료가 수집되었던 잠녀에 대한 연구가 그야말로 인류문화유산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되기를 기다린다. 잠녀는 생물학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인간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물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潛”이 곧 바로 “물질”이 아닌가? “물질”의 의미를 깊이 새긴 용어가 潛女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식민지시대에 정착한 용어 하나 제대

로 선택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찰이 가능하겠는가?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통성을 논할 자격을 잃게 된다.

탐라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제대로 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해정학의 핵심에 잠녀연구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하는 바다를 잃어 버린다는 것은 탐라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탐라의 해정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탐라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탐라복이 사라졌고, 탐라어가 사라지고 있고, 다음 탐라인이 사라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탐라론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감사의 말씀: 본고의 초고가 제주연구원의 토론회(2018년 6월 19일)에서 발표되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도원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께서 토양생태학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셨다. 이도원교수의 토양 미생물에 관한 메모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본고의 논리 전개는 일층 탄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安溪遊地교수(山口縣立大學)의 안내로 山口県立山口図書館所在松園寺内文庫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고의 일부는 제주학회40주년기념학술대회(2018년 6월 21일, 제주대학교 인문관 2호)에서 기조강연의 형태로 발표되었음을 밝힌다. 본고가 인쇄되는 도중에 김성국교수(부산대)로부터 한편의 논문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되었다. 김문조, 2017,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바다: 해양사회학서설」, 『사회와 이론』 30, 7-54. 김교수의 “해양사회학서설”은 부분적으로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육지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관념의 바다에 빠진 바다에 대한 사회학적 견해를 전개한 김교수의 논지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강만익, 2016,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67-103.
- 강문규, 2017, 『일곱 개의 별과 달은 품은 탐라왕국』, 한 그루.
- 김동전·강만익, 2015,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경인문화사.
- 김완병, 2016, 「연외천에 서식하는 무태장어」, 『연외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35-140.
- 노명호, 2017, 「고려전기의 천하관과 황제국체제」, 『고려 역사상의 탐색』, 노명호 편, 집문당, 3-24.
- 양계청, 2013, 「광령천의 담수어류」, 『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45-150.
- 이완옥·양계청·김대환·김대희, 2014, 「중문천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중문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45-158.
- 이완옥·홍양기·양계청, 2015, 「창고천에 서식하는 담수어류에 대하여」, 『창고천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41-154.
- 전경수, 2013,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학연구센터 편, 제주학연구센터, 11-58.
- 小倉進平, 1935, 「濟州島の異名」, 帝國大學新聞 572號.
- 網野善彦, 1987, 「中世から見た古代の海民」, 『海人の傳統』(日本の古代 第8卷), 大林太良 編, 中央公論社, 347-395.
- 網野善彦, 2009, 『中世の民衆像』(網野善彦著作集8), 岩波書店.
- 上野 武, 1992, 「太伯と徐福」, 『東シナ海と西海文化』(海と列島文化 第4卷), 網野善彦 編, 小學館, 127-160.
- 北見俊夫, 1992, 「東シナ海の海人文化」, 『東シナ海と西海文化』(海と列島文化 第4卷), 網野善彦 編, 小學館, 273-326.
- 澁澤敬三, 1954, 『祭魚洞襍考』, 岡書院.
- 下川達彌, 1992, 「考古學から見た海人文化」, 『東シナ海と西海文化』(海と列島文化 第4卷), 網野善彦 編, 小學館, 76-104.
- 高橋公明, 1987, 「中世東亜細亞海域における海民つち交流 - 濟州島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 33, 175-194.

- 高橋公明, 1992, 「中世の海域世界と濟州島」, 『東シナ海と西海文化』(海と列島文化 第4卷), 網野善彦 編, 小學館, 163-205.
- 田島佳也・安溪遊地, 2011, 「島と海と森の環境史」, 『島と海と森の環境史』, 湯本貴和, 田島佳也, 安溪遊地 編, 文一総合出版, 11-16.
- 田中源三郎 編, 1911, 『日本之朝鮮』, 有樂社.
- 鳥居龍藏, 1914, 「民族學上より見たる濟州島」, 『東亞之光』 9(12), 29-37.
- 森公章, 1985, 「耽羅方脯考」, 『續日本紀研究』 239号.
- 盛本昌広, 2009, 「海民という概念」, 『海と非農業民』, 神奈川大學 日本常民文化研究所 編, 岩波書店, 137-148.
- 柳田國男, 1909, 「山民の生活」, 『山岳』 4(3), 91-99.
- 柳田國男, 1933, 「高麗島の傳説」, 『島』 1(1), 17-28.
- 梁聖宗, 1994, 「木簡の『耽羅鰻』 についての一考察—現存する最古の記録遺物を読む—」, 『耽羅研究会報』 11, 2-6.
- 渡辺晃宏, 2018, 「耽羅鰻をめぐとめ耽羅と日本の交流」, 『耽羅鰻/度羅樂』(발표자료집), 제주연구원 제주학센터, 53-71.
- 奈良文化財研究所, 2017, 地下の正倉院展: 國寶 平城宮跡出土木簡, 奈良文化財研究所.
- 徐志良・男 2010, 「民国海疆版图演变与南海断续国界线的形成」, 『太平洋学报』 18(4), 92-97.
- 申報 74號 1872年 6月 20日字.
- Bennett, John W, 2003, *The Ecological Transition: Cultural Anthropology and Human Adaptation*, London: Routledge.
- Duchicela, Jessica & et.al, 2013, "Soil aggregate stability increase is strongly related to fungal community succession along an abandoned agricultural field chronosequence in the Bolivian Altiplano", *Journal of Applied Ecology* 50, 1266-1273.
- Field, Les & Lomawaima, K. Tsianina(eds.), 2008, *Abalone Tales: Collaborative Explorations of Sovereignty and Identity in Native C*

- aliforni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Finney, Ben R, 2003, *Sailing in the Wake of the Ancestors: Reviving Polynesian Voyaging*, Honolulu: Bishop Museum Press.
- Han, Sang-Bok, 1977, *Korean Fishermen: Ecological Adaptation in Three Communit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acGowan, Daniel J, 1891, “Gyneacocracies in Eastern Asia with Anthropological Notes”, *The China Review: or, Notes and Queries on the Far East* 19, 285–308.
- Ostrom, Elinor, 2015,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ukla, M. K., & et.al, 2003, “Land use and management impacts on structure and infiltration characteristics of soils in the North Appalachian region of Ohio”, *Soil Science* 168, 167-177.
- van Laerhoven, Frank & Elinor Ostrom, 2007, "Traditions and Trends in the Study of the Common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1(1), 3-28.
- Weil, Ray R. & Nyle C. Brady, 2016, *The Nature and Properties of Soils*(15thed.), New York: Pearson.

Abstract

“Tamna Sea” and Tamna Abalone : A Perspective of “Ocepolitics”

Chun, Kyung-Soo*

The word of Jejudo does literally and semantically mean an island belong to the Korean peninsula. It was coined by Koreans when the island was occupied at AD1105 by Koryo dynasty and lost her sovereignty and became a colony of Koryo. The word of Jejudo therefore means a colony. I dare to declare that the nature of this island should be viewed as an island surrounded by sea not as a part of colony belong to the peninsula. From the history around this island, Tamna which is a legacy of the old and independent state must be considered as a unique island in terms of identity. The uniqueness of this island can be captured by a part of historical document like Nihon-Shoki and remnant in Japan. One never forget the fact that a myth on this island tells us a mythical connection with Japan as three ladies sailed from Japan became wives of gentlemen in this island. Historical and mythological connection between Tamna and Japan .

Now we have a very unique historical document called as Mokkan(wooden slip 木簡) inscribed “Tamna Abalone”(耽羅鮆) excavated in 1963 at Fujiwara palace in Nara city, Japan. The wooden tablet carries an interesting information of Tamna Abalone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fered from Awanokuni(Chiba Prefecture at present) to the palace in AD745. How it comes to Japan? I am sure that there is no doubt to designate a trade between Tamna and Japan the trade route transported a bunch of abalone from Tamna. There wasn't even a single case of this from Korean peninsula. Trade through sea tells somehow us the nature and identity of Tamna state and the sea transporting Tamna Abalone means something to the East Asian History. I like to call the sea as Tamna Sea because of Tamna Abalone in history. Lost history of Tamna state should be recovered with this matter of sea trade with Japan.

Since the early 13th century, the word of Tamna Abalone in Japanese history disappeared. I like to challenge to explain this phenomenon by means of sudden environmental change of the island.

The island was developed for the military ranch for raising horses by Koryo government as well as Mongol invasion to Koryo. The virgin forest of the island was cut down and transformed into the wide grassland. The next stage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was automatically occurred in the land of the island. The virgin forest would theoretically carry relatively quantity of water for the aggregate of the soil while the grass land should be functionally less active for incubating large amount of water. At present time, there are several rivers and creeks with nearly no running water in this island. This must be the result of complete logging the virgin forest of the island. Mountain-river-sea route must be the channel for nurturing the sea because organic nutrients from the land and mountain following through the river to the sea. Disappearing the virgin forest in the island for the military ranch resulted into malnutrition of the sea. This causes extinction of the Tamna

Abalone in the island. Sea-centered perspective will save this island. I like to suggest another word for this perspective as Oceopolitics instead of Geopolitics from now on.

Keywords : Tamna Abalone, Mountain-River-Sea, Oceopolitics, soil ecosystem, recovering the virgin forest

교신 : 全京秀 221-0802 日本神奈川県横浜市神奈川区六角橋5-8-1
神奈川大学白楽寮 7106号室
(E-Mail: korancks@hotmail.com)

논문투고일 : 2018. 07. 20
심사완료일 : 2018. 08. 03
게재확정일 : 2018. 08. 06